

'제1회 섬의 날' 행사 목포 삼학도서 열린다

전남도, 8월 8일~10일 '섬 페스티벌' 섬 가치 알릴 것 김기정 총감독 위촉... 전국 60여 기관 참여 의향 밝혀

'제1회 섬의 날'에 맞춰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린다.

첫 국가행사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대에서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을 주제로 열린다. 다도해의 보석인 전남 섬의 가치를 조명하고 생물 다양성을 갖춘 섬의 생태,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행사 취지에 맞춰 한 여름밤 축제인 '섬 페스티벌'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19일 섬의 날 행사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섬의 날 기념행사 총감독으로 김기정 감독을 위촉했다.

김 감독은 보령머드축제-예천세계군중엑스포-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목받았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첫 행사라는 점에서 기념식 위주의 기존 행사와 달리, 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 끝단 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주제 퍼포먼스와 섬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섬을 보유한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 등 60여 기관 단체가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전시 행사가

계획됐다.

또 섬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경연대회, 유명 스타셰프의 섬 푸드쇼,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섬 토속음식과 섬 막걸리로 꾸며지는 '너도(鳥) 나도(鳥) 페스티벌', 아름다운 섬과 자연을 주제로 한 '섬머 아일랜드 가든'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중이다.

전남도는 기념행사가 여름방학기간 열리는 만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키즈 드림 아일랜드), 어린이 그림그리기·동요대회, 어린이 해양 직업 체험 등도 마련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팝(K-POP)콘서트, 세계 마당페스티벌, 선박 퍼레이드,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야간 빅 이벤트도 펼쳐진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섬의 날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전국 섬 주민들이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섬 가치를 공유하는 전시행사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섬의 날은 전남도가 '미래의 보고'인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섬의 날' 제정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시개발촉진법'을 개정, 매년 8월8일을 '섬의 날'로 정했다. 8월8일은 국민이 기억하기 쉽고, 8월이 섬지역 먹거리·볼거리가 가장 풍성하며, 여름 휴가철과 함께 섬 방문객이 가장 많은 점, 8이라는 숫자가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자 100만명 눈앞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본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자 1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사)마리안느·마가렛(이사장 김연준 신부)'은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본 두 분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된 '마리안느와마가렛 노벨평화상 1백만인 서명운동'에는 정관계, 학계, 재계, 복지의료, 봉사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도 일생을 한센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온 두 간호사의 교훈적 삶을 재조명하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19일 현재까지 서명자는 91만5470명으로, 6월 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전남도와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국내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되는 2020년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에서 세계간호협회 주최로 열리는 세계간호학술대회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해 각 나라 대표 간호사들에게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정신과 노벨평화상 수상 당위성을 알리 나갈 계획이다.

세계간호학술대회에는 130여개 국가 5000여 명이 참석한다.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oeger·85)와 마가렛 피사렉(Margareth Pissarek·84),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각각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40여 년을 한센인을 위해 봉사했다.

한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다가 고령에 활동이 여의치 않자 2005년 11월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소록도를 떠나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일기업 출연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정부, 日에 제안

정부는 한일관계를 흐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랑에 휩싸였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안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우리 양파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왼쪽)와 김석기 농협전남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도청 구내식당에서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양파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직접 담근 양파김치를 배식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위해 마련됐다. 양파는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 씨팍쇼에서 전남 수산물·천일염 우수성 알린다

20~22일 고양 킨텍스에서 '전남도 명품 수산물 홍보관' 운영

전남도는 20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씨팍쇼(Sea Farm Show) 해양수산·양식·식품 수출박람회에서 전남산 수산물·천일염의 우수성 홍보 및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전남도 명품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라남도 명품 수산물 홍보관'에는 천일염을 포함한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생산 과정과 고부가가치를 통해 출시된 수산물

가공제품을 전시한다. 또 전라남도해양수산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신제품 및 양식기술 개발사항을 홍보해 전남 수산물·천일염의 차별성, 특수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 유관기관 및 업체, 구매력이 높은 국내외 바이어 등이 대거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2019 씨팍쇼에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도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며, 전남 어촌, 기업, 전문가가 함께 제작한 전복분말, 조개분말, 스킨 등 가공수산물도 내놓고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에 나선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수산물과 천일염이 국내외적으로 사랑 받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등 명품 수산물·천일염의 판로를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빛그린산단 등 5곳,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주시, 9월 산업부 신청·12월 예비 대상지 발표 예정

광주시가 자동차전용 산업단지인 빛그린산단 등 5개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올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9일 시청에서 민선7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조기개발 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 혁신역량 집중도, 국가정책방향, 기업환경 등을 고려해 ▲빛그린산단(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밸리산단(스마트 에너지 산업) ▲도시첨단국가산단(스마트에너지산업) ▲평동3차산단(지능형 공기관업) ▲첨단3지구(인공지능 융·복합 산업) 등 5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로 삼고,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광주시가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말 산업부에 개발계획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예비 대상지 발표가 나고,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확정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법정 혜택이 주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보탬이 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광주테크노파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전남 KOTRA지원단, 전남도, 함평군, 장성군 등 유관기관과 용역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환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뉘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임야 매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 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 인 직 거 래

http://gjbk.kr http://mygcds.com

제12회 영천한마당

광주 바이블칼리지 & 국제기독교를 개교 12주년 기념

영천 한마당 행사에 초청합니다.

-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11:00~18:00
- 장 소 | 광주 바이블칼리지 & 국제기독교를
- 대 상 | 동문, 노회원, 지역주민 등 누구나
- 강 사 | 손영진(CCM 가수)

● 프로그램 ●

- 1부 예배, 점심, 오픈마켓, 보물찾기
- 2부 특별찬양, 간증, 음악연주 등 다양한 무대
- 3부 미니 체육대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
문의: 061-381-0000/1365

학장 이원수 박사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교를
(기독교 중고등 대안학교)